



의약품 오·남용 예방

7월 1일부터

의약분업이 시작됩니다

의약분업은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을
전문의료인인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진단하여
가장 적합하게 처방한 후 처방전에 따라
전문적으로 의약품을 조제·판매하는 제도이다.

즉 의사는 진단 및 치료에 주력하고,
약사는 조제 및 투약에 전문성을 높여,
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.

의약분업이 실시되면 기본적으로 모든 의약품은
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약국에서 조제할 수 있다.
다만 소화제와 같이 오남용의 우려가 적은
일반의약품은 지금처럼 약국에서
직접 구입할 수 있다.

이제 우리의 건강생활과 함께 할 의약분업에 대해 보다
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.